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의한 디자인 변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Transform of the Modern Architecture Renovation

Author 이성호 Lee, Sung-Ho /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오인욱 Oh, In-Wook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As people abroad have been much interested in the usage of modern architecture from the early days, many researches about various methods of using them have been progressed. In Korea, with the need to protect the modern architecture through active usage of them in the dimension of protecting the disappearing history, at present, many modern architectures were renovated and used.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ense of direction about the changes of design of the renovated modern architectures in Korea by analyzing the design changes after the renovations in Korea and abroad. Under the limitation of the modern architecture renovation case in Korea, Japan and China, the changes of design after the modern architecture renovation in Korea and abroad were analyzed by the analysis of the ways of remodelling for each case according to the case analyzing frame. Based on the reasons of renovations which had purpose of preserving social history with many other various reasons in common in both cases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remodelling and abroad, the common direction of design is to meet new with old to preserve the special image though they did it in different ways. However, different from the case of Japan and China which are coexisting present and past in space, Korean case focused too much on outside, which resulted in only outside designs. In the case of Korea, the past should have mutual understanding to have the firm space image by forming unique interior space culture through the architectural grafting the present in the past not only in the outside space but also in the indoor space. In another words, for the various changes of design in Korean modern architecture renovations, a systematic research should be done about the interior spaces of present architecture and modern architecture.

Keywords 근대건축, 리노베이션, 디자인 변형, 보존
Modern Achitecture, Renovation, Design Transform, Conserv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모든 물리적인 실체에는 그 고유의 수명에 한계가 존재하듯이 건축물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실체로서의 건축은 물리적인 재료의 한계보다 사회적 변화의 이유로 그 수명이 채 30년을 넘기지 못한다.¹⁾ 따라서 현대의 건축적 상황은 낡고 오래 된 것은 사라지고, 그 장소에 뉴밀레니엄적인 새로움과 형태적으로 특이한 건축물이 지어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기존의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던 역사성과 장소성, 도시 구조와의 관련성, 그리고 건축물이 축조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등의 가치는 이전의

건축물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정체성이 모호한 신기루와 같은 건축물만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나라도 2001년 3월부터 지정문화재 제도를 시행하여 근대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통해 보존·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 활용과 보호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명확한 리노베이션 기준에 근거하기 보다는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반발에 의한 경향이 짙어서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대한 이념적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우리의 도시는 시간의 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역사적 장소로서 일정한 한 시기만을 간직한 곳이 아닌 여러 시간대가 공존하는 현대 도시로 나아가야 한 다²⁾라는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근대건축물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5inwook@kyungwon.ac.kr

1) 백소원, 현대건축에서 다이어그램의 활용유형과 역할 연구, 2010.02, p.1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 변형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의 도시에 존재하는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사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한,중,일에 소개한 대표적 근대건축물의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작품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과 국내·외 건축, 인테리어 관련 범위 내의 단행본 및 매거진 등의 관련 문헌상의 기록들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진 자료집 등을 통해 공간구성을 조사하였으며 각기 공간들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³⁾

사례의 범위는 국내는 서울의 리노베이션 된 근대건축물로 하고, 국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근대기를 보냈으며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 정서 등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의 리노베이션 된 근대건축물로 한정하였다.

2. 근대건축물의 보존적가치와 리노베이션의 이론적 고찰

2.1. 근대건축물의 보존적 가치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el)은 그의 저서 '근대문화재 문화에 대하여(Ueber den modernen Denkmalkultus)'에서 "문화재적 가치는 역사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 갖는 의미(Seiner Bedeutung Fuer die Gegenwart)에서 정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문화재의 가치는 생성 당시 주어지는 특성이나 특징에 의한 것이 아닌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의해 근본적인 가치가 있음을 주장했다.⁴⁾

즉, 건축의 가치는 단지 생성 당시의 목적이나 의미가 아닌 현재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특히나 건축은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때 당시의 가치에 의해 계속적인 변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가치가 계속 더해져서 당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성에 근거한 역사적 의미까지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근대건축을 보존한다는 것은 단지 건축물 보존뿐만 아니라, 당시의 가치와 함께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도시의 기억과 사회성, 역사성, 문화를 되살려 현대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건축물은 우리가 도시 내에서 가

지고 있는 가장 유형적인 존재이며, 문명의 발전을 가장 쉽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기록이다.

이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보호받는 건축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라 질 위험에 처한 과거의 역사·문화가 갖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며, 특히 도시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여 쇠퇴하고 있어 사라 질 위험에 처한 근대건축물에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통해 도시의 기억과 사회성, 역사성과 문화를 지켜야 한다.

2.2.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각 나라마다, 연구자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과 범위의 설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리노베이션에 대하여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건축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현대에 맞춰 개량하는 것」으로 개·보수, 개량, 대수선 등의 의미와 비슷하다.

(1) 리노베이션의 원인

건축물 보존에 있어서 리노베이션의 발생 원인은 크게 물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역사·문화적 원인, 경제적 원인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 1> 리노베이션의 발생원인 및 내용

원인	내용
물리적 측면	· 건축물의 열화에 의한 균열, 부패, 화재 등의 위험성 증가 ·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성능 저하 · 공간 재배치에 의한 공간 효율 증대 · 도로신설 및 확장 등의 도시 구조상의 변화 · 시공부실에 의한 결함 발생 · 방재, 방재 특면에서의 위험성 증가
사회적 측면	· 정보화 및 산업화 경향에 동침 ·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다양한 생산과 소비 유통의 구조적 요구 · 소득증가에 따른 문화생활, 여가활동 증가 등 Life Cycle 변화 · Life Style의 변화로 인한 주거 공간 및 상권의 변화 ·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요구 증가 · 사회적 시스템과 인식, 가치체계 등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 새로운 분위기 창출의 심리적 욕구
역사·문화적 측면	·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 법적 규제 변경 · 현대적인 새로운 건축문화 조류와의 만남과 서구 생활양식의 파급 · 사람들에게 주는 상징적이고 의미론적인 역할의 역사를 보존 · 과거와 현재로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사용 목적과 상황, 인식의 변화 · 경제, 습관, 사회구성,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의 시대적 요구사항
경제적 측면	· 건축적 현행법과 비교 법적 이득 · 소유부동산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유지관리비용(Life Cycle Cost)의 절감 · 지가폭등에 따른 건축물 유효활용 필요성 증가 · 건물의 상대적 열악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 · 직·간접적 영향에 따른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변화

(2)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방법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은 그 자체의 편의보다는 보존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화와 전통의 유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리노베이션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건축물의 활용이므로, 무순용도의 건물이었던지 기존의 건축물은 그 당시 시대의 문화, 기술, 사회의 수준 등에 맞추어 건립되었고, 건축

2) 이완진, 근대건축 보존 그리고 역사도시 서울, 2009.12, p.12

3) 특히 국외의 경우는 직접방문이 힘들고 자료의 조사가 힘들고 출처가 불분명하여, 건축 관련 단행본 및 해당 건축물 공식 웹사이트, 국내 논문 및 연구 자료로 참고 문헌의 범주를 한정하였다.

4) 주범, 독일 도시복구의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권 1호(통권183호), 2004, p.143

물이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동일 용도이든 아니든 오늘날 건축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라 변형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방법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표 2>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방법 매트릭스

보존장소	증축유무	보존상태	보존형식
현지	유	현상	전면
이축	무	복원	부분
			이미지

자료출처 : 이완건, 근대건축 보존 그리고 역사도시 서울, 2009.12, p.82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의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원형·증축·부분·이미지 보존으로 나눌 수가 있다. 원형보존은 건물 전체의 원형을 보존하는 방법, 증축보존은 기존의 건축물에 새로운 매스를 첨가하는 방법, 부분보존은 건물의 일부를 보존하는 방법, 이미지 보존은 원래의 건물을 떠올리게 디자인하는 방법이다.

<표 3>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의 방법 유형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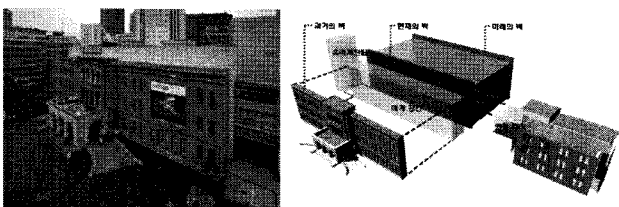
구분	보존유형		변경내용
변경방법	원형보존	현상보존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건립당시 그대로 보존하는 경우
		복원보존	멸실·훼손된 건축물을 건립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보존하는 경우
	증축보존	신구병치보존	수평: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대지에 별관을 건축하여 증축하는 방식으로 증축부분을 복도 등으로 연결시켜 기존 부분을 보존하는 경우 수직: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체형으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증축하는 방식으로 증축부분과 기존부분을 일체화시켜 보존하는 경우
		신구융합보존	수평: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체형으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증축하는 방식으로 증축부분과 기존부분을 일체화시켜 보존하는 경우 수직: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체형으로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증축하는 방식으로 증축부분과 기존부분을 일체화시켜 보존하는 경우
부분보존	외관	전체: 근대 건축물의 외피 전체 혹은 부분·전면부만 내부와 분리시켜 보존하는 경우 부분: 건물 내부에서 독특한 양식의 인테리어나 의미있는 부분을 남겨 보존하는 경우	
	실내	공간: 건물 내부에서 독특한 양식의 인테리어나 의미있는 부분을 남겨 보존하는 경우 요소: 건물 내부에서 독특한 양식의 인테리어나 의미있는 부분을 남겨 보존하는 경우	

3. 국내·외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례

3.1 국내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례

(1) 서울시립미술관(구 대법원청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경희궁지 내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은 1895년 조선의 최초의 재판소인 평리원이 위치했던 곳으로 대법원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본관 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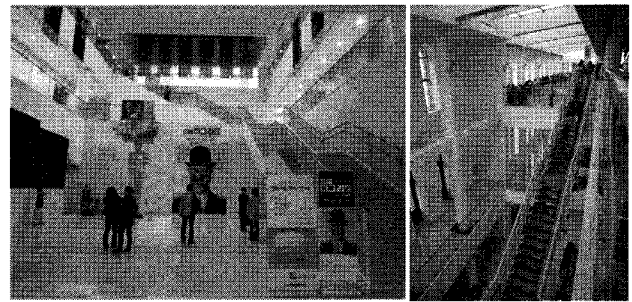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립미술관 전경(좌), 매스계획개념(우)

1층·지상 2층, 별관(서울600년 기념관) 지상 2층이었으나 경희궁 복원에 의거 구 대법원건물이 이전되고 이를 개·보수하여 2002년 5월 이후 이전되었다.

<표 4>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대적 기능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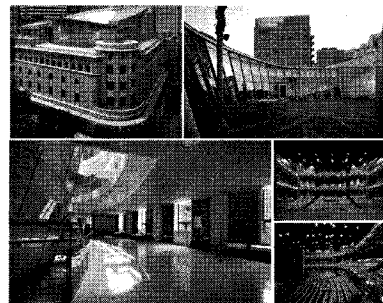
사용년도	명칭	주용도
구한말	-	덕수궁 일부
1927 ~ 해방전	경성재판소	공공청사
해방후 ~ 1995	대법원	공공청사
2002 ~	서울시립미술관	문화시설

건축물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부각되도록 현상공모를 통해 외관은 모두 보존하고 내부만 개·보수를 통해 건물 자체를 보존하여 리모델링하려 계획하였으나 내부구조의 극심한 노후화 및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건물의 파사드만 보존하고 그 외부 부분은 미술관의 기능에 맞추어 재건축하게 되었다.⁵⁾



<그림 2> 건물 내부 중앙 홀(좌)과 파사드와 내부의 매개 공간(우)

(2) 명동예술극장(구 명동국립극장)



<그림 3> 명동예술극장의 내·외부 전경

서울시 중구 명동1가에 위치한 명동예술극장은 1936년 명치관으로 개관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유와 용도가 변화하였다. 1973년 금융회사에 매각되어 리노베이션되어 공간의 성격과 기존

구조와 형태가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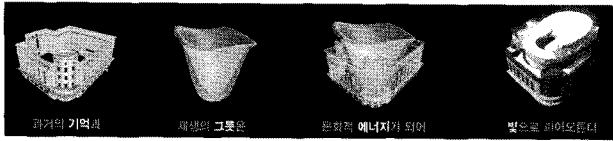
이에 각계의 인사들이 극장의 복원을 주장하였고, 결국 문화관광부가 주축이 되어 초지를 매입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표 5> 명동예술극장의 시대적 기능변화

사용년도	명칭	주용도
1936 ~ 1948	명치관	문화시설(영화관)
1948 ~ 1961	서울시공관	문화시설(집회시설)
1959 ~ 1973	국립극장	문화시설(공연장)
1973 ~ 2004	대한투자금융	업무시설
2010 ~	명동예술극장	문화시설(공연장)

5) 이대규, 국가기무사령부 건물을 활용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계획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2,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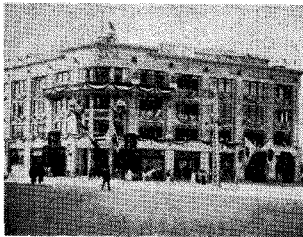
외관은 부분 보존의 방식으로 보존 가능한 주 파사드에 대하여 보존과 원형 복원을 병행하여 내부 전체를 새롭게 신축하여 새로운 건축물로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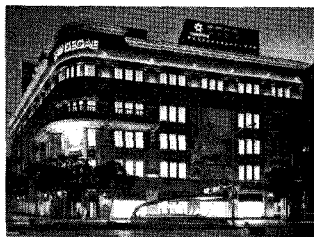
<그림 4> 명동예술극장의 디자인 개념 및 초기스케치

(3) 신세계 백화점 본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번지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본관은 1906년 일본 미쓰코시 시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기능이 변하지 않고 백화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6·25이후 증축 및 대규모 수리 등으로 건물 내외부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림 5> 건립 초기 외관, 1930년
자료출처: 朝鮮と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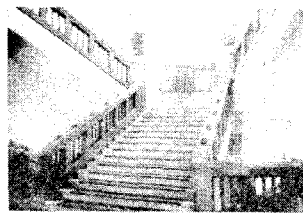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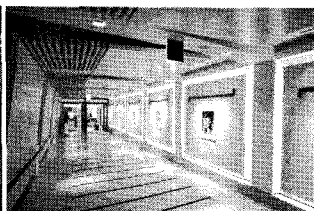


<그림 6> 현재의 외관,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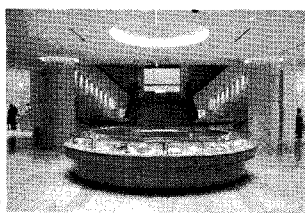
신세계 백화점 본관은 2005년 신관을 증축하여 1층과 4층에서 브릿지로 연결하고, 2007년 본관은 다시 전체 리노베이션에 들어갔다. 원형복원의 측면에서 5층 철거를 고려했지만 현실적 무리가 따라 그대로 유지 한 채 외부 전체의 보수와 변화된 부분의 복구 혹은 양식의 복구, 내부공간의 중앙 계단만 보존하며 재정비하였다.



<그림 7> 본관·신관을 연결하는 1층 브릿지(좌)와 4층 브릿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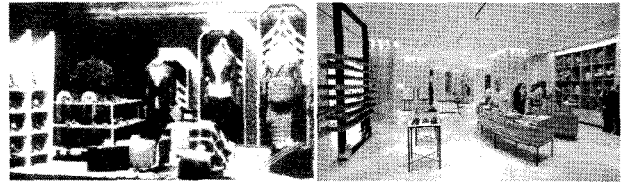
<그림 8> 미쓰코시백화점 1층 중앙계단
자료출처: 朝鮮と建築



<그림 9> 신세계 백화점 본관 중앙계단

백화점의 내부 매장의 공간은 쇼케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배치를 통해 상품의 진열을 돋보이게 하는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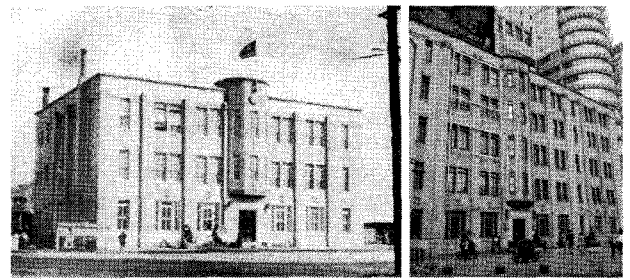
의 형태에서 동선을 고려하여 최대한 넓게 구성하여 상품 자체의 부각 보다는 공간의 여유로움과 쾌적함이 느껴지게 설계가 되었다. 그리고 매장의 각 층마다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매장 외의 대부분의 벽과 1층부터 3층까지 트인 중앙 홀 공간을 아트웍으로 사용하여 국·내외의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하였다.



<그림 10> 미쓰코시백화점 매장
자료출처: 朝鮮と建築

<그림 11> 신세계 백화점 본관 매장

(4) 일민미술관(구 동아일보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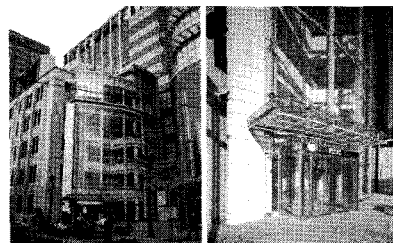
<그림 12> 최초의 구 동아일보 입면과 현재의 일민미술관 입면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은 1926년 신축되어 1992년까지 66년 동안 동아일보 사옥으로 사용되었으며, 여러 번의 증축과 리노베이션을 거쳤지만 개구부의 위치 및 형태 등이 건립초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00년 동아미디어센터가 건립되고, 동시에 구 사옥 건물의 소생이 거론되었다.

<표 6> 일민미술관의 건축 연혁

연도	유형	내용
1927	개관	지하 1층, 지상 3층
1958	증축	남측으로 2칸
1962	증축	상부 2개 층
1968	증축	상부 1개 층
2002	병합	우측 동아미디어센터와 병합

외관상 훼손 정도가 심한 건물 우측부의 외부계단 부



<그림 13> 증축된 아트트리움과 입구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거하여 주출입구를 배치하고 3개 층으로 오픈된 아트트리움을 마련하면서 보존된 외관의 일부를 내부공간화 하였다.⁶⁾ 이로서 과

6) 이대규, 국가기부사령부 건물을 활용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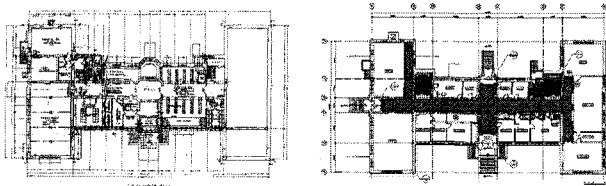
거의 것과 현재의 것, 불투명한 것과 투명한 것이 연결되고, 내부 역시 보존을 전제로 한 개·보수를 통해 미술관의 기능에 맞게 바꾸고 현대화 하였다.

(5)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건축당시부터 본관으로 지어져 현재까지도 대학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당시에 건축된 주변 건물과 함께 이화여대의 역사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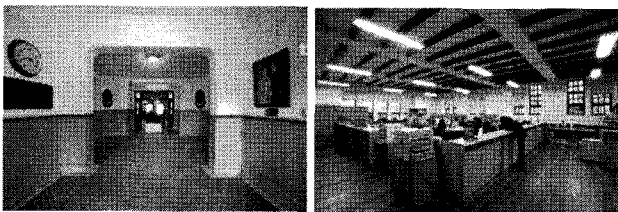
<표 7> 이화여대 파이퍼홀의 시대적 변화

연도	유형	내용
1935.03	건립	파이퍼홀
1953	복구	6.25 동안 피해부분 복구



<그림 14> 건립당시(좌)와 현재(우)의 1층 평면도

건립 당시에는 사무실, 교실, 실험실, 도서실, 식당 등이 있었고 3층의 왼쪽 공간에는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이 있었다. 3층 중앙에는 이 건물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인 '애다기도실'이 있다. 규모는 작으나 중앙에는 작은 제단을 두었고 천장에는 고딕양식의 목재 지붕틀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룻바닥에는 뾰족한 고딕양식의 장식을 붙인 의자들이 있다. 여성고등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물로서 창과 문, 계단 난간, 바닥 타일까지도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⁸⁾



<그림 15> 파이퍼홀 중앙홀

<그림 16> 파이퍼홀 학적과

파이퍼홀은 좌우 날개부를 가진 'H'자형의 좌우대칭형 평면으로 구성되었고, 건물 좌우 양익은 전면으로 돌출되었다. 양쪽 날개부는 각 실들로 접근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도만을 두고 대부분 실들로 채워졌다. 복도 공간이 적고 또한 하나의 실이 폭 전체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실들로 쓰이고 있다.⁹⁾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2, p.45

7)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2006,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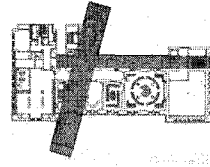
8) 두산백과사전

9) 조신혜, 근대건축물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12, pp.29-31

3.2. 국외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사례

(1) 일본

1) 국제 어린이 도서관



<그림 17> 1층 도면

일본 토요도 타이토우구 우에노공원에 위치한 국제 어린이 도서관은 1906년에 건립되어 2000년 3분의 1을 개축한 뒤 일부 개관, 전면적인 개·보수를 통해 2002년 5월 5일 개관한 일본 최초의 국립 아동도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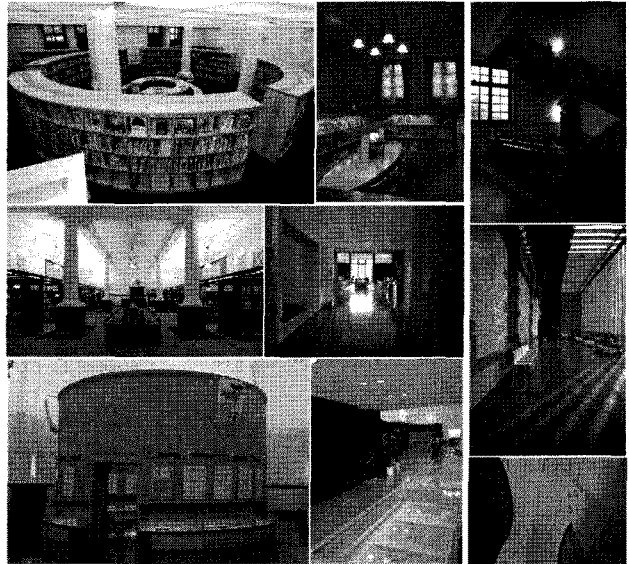


<그림 18> 초기와 현재

네오 르세상스 양식의 이 건축물은 신구 건물을 절충하는 개축을 하였다. 기존의 건물에 15°의 글라스 박스를 관통시키는 것과 기존 건물 벽면을 글라스 월로 쓴 두 개의 현대적인 글라스 박스를 삽입시켜 역사성과 현대성을 대비시켰다.

대부분의 기존 부분들을 준공 당시의 상태를 재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간의 사용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 하여, 공간을 싸고 있는 내벽을 예전 그대로 한 채 인테리어는 기존의 것과 자립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현대화 하였다.¹⁰⁾

1층은 카페테리아, 어린이방, 세계 방, 이야기 방이, 2층은 제 1, 2자료실, 3층은 책 뮤지엄, 미디어 실이 있다.



<그림 19> 국제어린이도서관 1층(상), 2층(중), 3층(하) 내부

<그림 20>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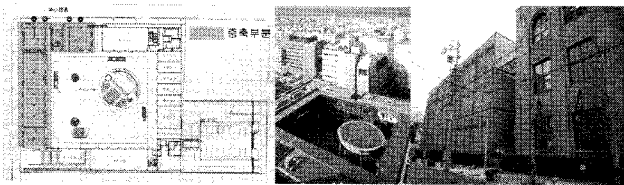
10) 서성호,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재활용을 위한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02, p.71

2) 신평관(구 교토 전화국)



<그림 21> 창문을 이용한 출입구

교토 카리스마산조 교차점에 위치한 신평관은 1926년 9월에 건설된 구 교토중앙전화국이다. 신평관의 리노베이션은 전통과 현재의 대비와 융합으로, 외관과 건물의 원형은 보존하고 신·구 건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다. 'L'자형의 기존 건물은 'C'자형의 새로운 건물과 조합시켜 중정을 'O'자형 배치를 하였다. 동시에 외관과 내부와의 극적 반전을 줄 수 있었다.



<그림 22> 1층 평면도

<그림 23> 신포관 중정

<그림 24> 증축부(좌)와 기존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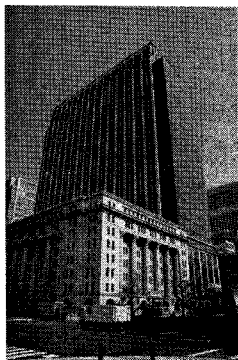
5m의 높은 천정높이를 이용하여, 바닥레벨을 올리고 기존의 창문을 출입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 'L'자 형태로 건물을 남기면서, 계단실이 철거된 것을 역이용하여 철골로 복도와 계단을 증축하고 지진에 대비해 독립된 구조로 설계되었다.¹¹⁾ 도로 쪽 외관은 원형을 보존하고, 내부는 증축과 2층의 공중옥외복도를 새로 설치, 내부 공간의 부분적 리노베이션을 통해 현대화 하였다.



<그림 25> 메인 출입구

<그림 26> 신평관 내부 중정(좌)과 상점(우)

3) 메이지 안전생명 빌딩



<그림 27> 메이지 안전생명 빌딩 전경

도쿄의 역사적인 금융가인 마루노치(Marunocuchi)에 위치한 메이지 안전생명 빌딩은 1934년에 완공된 메이지 안전생명의 본점이다. 쇼와시대 건축물 중 처음으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6년에 메이지생명신관과 연결되는 리노베이션이 건물의 전면 보존으로 완성되었다.

이 건축물의 특징은 아트리움이다. 메이지 생명관 동측입면과



<그림 28> 메이지 안전생명 빌딩 내부 아트리움과 통행로

증축된 고층의 신건물에 감싸여진 메이지 생명관의 사이의 골목 공간은 공공 통로 실내가 된다. 파사드와 아트리움에 의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다.

구관과 신관이 동일 건축물로 보이도록 외관을 연속적으로 표현했으며, 7층 이상은 남북입면을 유리 커튼월로 마감하였다.¹²⁾



<그림 29> 메이지 안전생명 빌딩 내부 모습

4)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¹³⁾



<그림 30>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 건립당시(좌)와 현재(우)

도쿄도 분교구 혼고에 위치한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은 1995년 당시 리노베이션을 통한 활용의 사례가 매우 드물었던 시기에 기존의 건물을 살리는 것은 물론, 건축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실과 도서관을 부가함으로 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제공한 성공 사례이다.

개수전의 이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공간의 여유가 모자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증개축을 통해 원래의 건물 파사드 부분을 온전히 남기고, 외벽 등도 적극적으로 살려서 옛것과 새것이 조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다.

외벽의 테라코타 장식과 개구부 등의 외부장식과 건물 내부의 타일 바닥, 정면계단실의 수복 그리고, 복도 동선의 조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1>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의 기존 외벽의 보존

<그림 32> 재료의 대비

11)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2006, pp.120-121

12) 이현경, 1960년대 서울 도심건축물의 가치와 보존요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02, p.40

설계의 주안점으로는 기존의 증정에 새로이 지붕을 이어 제도실로 하고, 기존건물의 북면 외벽 증축부분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밝고 개방적인 공간을 구성한 점, 기존 건물의 북측에 새로운 도서실이 생기면서 기존의 외벽은 증축부분의 북도 내벽으로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건물의 외관을 보면, 남측은 변함없이 고딕풍의 파사드를 가지고 있으나, 북측의 증축부분은 커튼월의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어 북측과 남측의 디자인의 대비가 각각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5)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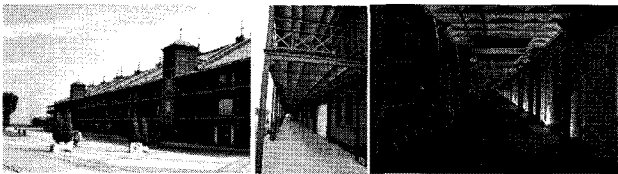


<그림 33>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 전경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신미나토 1-1-1~2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인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는 1907년 1호관이 먼저 건축되고, 2호관은 1911년에 건축되었다. 아카렌가는 벽돌이란 뜻으로 이 건물은 미나토 요코하마의

상징인 상업시설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벽돌 구조의 취약점이 드러남으로써 벽돌 소재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래서 다시 벽돌 건물의 활용과 벽돌의 안정성 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벽돌조의 성능이 확인 될 만한 이 건물을 새로운 내진 성능을 가진 벽돌구조법을 전개하여 리노베이션 하게 되었다.



<그림 34>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 외관의 신구 재료의 대비 -벽돌+스틸

건설 당시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하여 외관을 보존하고 노화 손상에 대해 보수하며 적벽돌 치수와 색상을 검토하여 노화된 벽돌은 수복 현대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외부와 신구의 대비를 적용하였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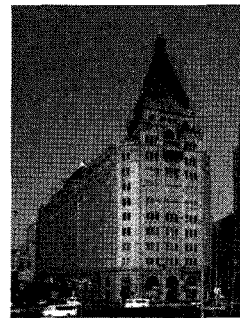
<그림 35> 내부 모습

건물 내부를 전면 리노베이션 하였으나, 외부 적벽돌이 내부에서도 나타나 그대로 내벽으로 쓰고 주로 투명한 유리나 아크릴이 쓰였고, 부분적으로 다른 마감재

를 사용했다. 1호관은 홀과 다목적 공간, 2호관은 라이브 레스토랑과 비어 레스토랑을 비롯한 음식점과 상점이 31곳 있다.

(2) 중국

1) Sassoon House¹⁵⁾



<그림 36> 외관

Sassoon House는 상하이 부둣가 해안 길을 대표하는 메인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로 선진기술이 사용된 상하이 첫 번째 10층짜리 빌딩으로 '극동지역 제일의 빌딩'으로 불려졌다.

이 건축물의 동쪽은 13층이고 다른 부분은 77m 높이의 9층으로 콘크리트 구조로 보강된 것 이외에 개·보수에 의해 건립 당시



<그림 37> 1층 로비(좌)와 홀(우)



<그림 38> 내부 벽도 모습



<그림 39> 식당(좌)과 객실 내부(우)

의 내·외부가 모두 원형보존 되어 있다. 전형적인 모더니스트와 아르데코 스타일로 평면은 알파벳 'A'자와 비슷하다. 외관 구조는 대개 수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가 처마, 쇠시리, 기초 등의 몰딩에 사용되어 심플해 보인다. 동측 파사드의 지붕은 피라미드 모양이다. 이는 1920년대 오벨리스크와 함께 매우 인기 있는 장식요소였다.

우 인기 있는 장식요소였다.

Sassoon House의 1층과 5~8층은 그 당시 상하이에서 유명한 Cathay Hotel이었다. 1층은 홀이 있고 5~8층에는 독특한 게스트 룸이 있다; 5층의 게스트 룸은 장식은 스페인, 독일, 그리고 인도 분위기; 6층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분위기; 7층은 중국, 영국 분위기. 8~9층에는 식당 홀과 클럽이 있다. 2~4층은 많은 사무공간이 있다.

2) Bund 9¹⁶⁾

1901년 Li Hongzhang이 설립한 3층짜리 오피스 빌딩은 초창기 Steam Navigation의 회사로 부둣가 해안 길에서 가장 오래 된 건물 중 하나이다.

13)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2006, pp.133-134

14) 윤성훈, 해외 근대건축물의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10, p.71

15) Wang Xuyuan, SHANGHAI CHINA THE BUND & ARCHITECTURE OF ONE CENTURY, 2008.03, pp.220-237 번역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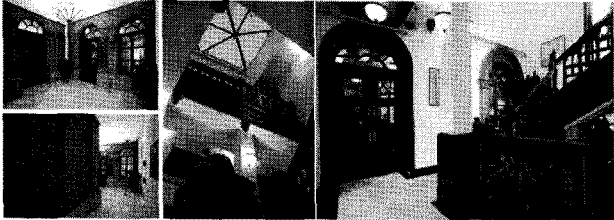
16) Wang Xuyuan, SHANGHAI CHINA THE BUND & ARCHITECTURE OF ONE CENTURY, 2008.03, pp.372-385 번역 요약



<그림 40> 외관

2001년 가을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은 건축물의 보존 목적과 복원된 장소에 맞는 협업을 디자인 하는데 2년이 훨씬 넘게 걸렸다.

복원된 부분 중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철거되고, 독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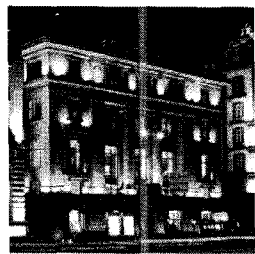
<그림 41> 복원되어 보존된 복도(좌)와 계단실(우)

복원 기술을 통해 동측 파사드 벽과, 남쪽과 북쪽 끝의 페디먼트가 복원되었다. 건물전체의 복구와 재료의 복구는 모두 문서와 역사적 재료, 실측이 연계되어 역사적 사진을 통해 이루어졌다. 내부공간은 보존과 개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조작으로 복원되어 신·구 공간 사이에 공간의 정신이 남아 내적 연결이 존재한다.



<그림 42> 변형된 내부와 보존된 개구부(창)

3) Bund 1817



<그림 43> 외관

2002년 이후 건축물에 대한 보존과 복구가 시작되어 2년 동안 당시의 상태와 역사, 초기 건축의 느낌, 예술적, 미학적, 역사적인 디테일의 특징을 분석하고 복구계획을 만들어 재현·복원하여, 영국 혼합스타일의 모습과 모던한 내부 장식이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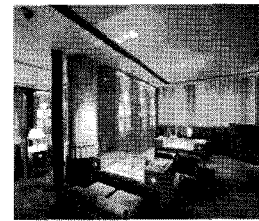
내부 장식과 복원은 원래 건축물의 정신을 이었지만 단지 “오래된 것의 복원 그 자체”는 아니었다. 미학적 시스템의 생성과 동시에 새로운 장식, 요소와 역사적인 의미로써 보존해야만 하는 장식의 원형의 스타일과 조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건축물의 역사적인 기역과 새로운 기능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신·구문화의 모순은 없



<그림 44> 복원과 변형이 동시에 이루어진 내부 모습

어졌고, Bund 18은 새로운 의미와 삶을 제공하게 된다.

구조강화와 복원, 장비의 설치와 내부 개조를 포함하여 Bund 18의 복원은 상하이의 역사적인 빌딩의 보호와 복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과 기준을 제시



<그림 45> 매장 내부

했다. 동시에 빌딩 보존과 비즈니스 이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A remarkable award of 2006 UNESCO AsiaPacific Award for Culture Heritage Conservation”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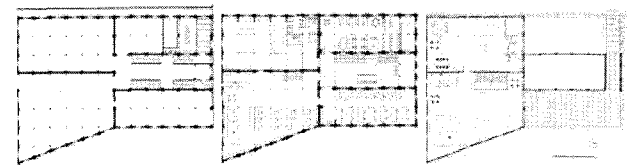
4) Suzhou Creek Warehouse¹⁸⁾

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바닥과



<그림 46> 외관

벽면을 철저히 깨끗이 하는 것이었다. 공간은 거의 변환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맞게만 조정하였고, 오래되어 부식되고 낡은 건물의 구조는 기둥과 금속 빔으로 강



<그림 47> 1층(좌), 2층(중간), 3층(우) 평면도

화하였다. 비록 건축물은 재료와 파사드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마을 역사의 일부로 다시 되돌려 놓았다. 2~3층에 연결된 크고 높은 공간은 벽면을 복원하고, 마룻바닥의 개·보수와 조명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채광창은



<그림 48> 계단과 내벽

<그림 49> 3층 내부

<그림 50> 2~3층의 연결된 공간

17) Wang Xuyuan, SHANGHAI CHINA THE BUND & ARCHITECTURE OF ONE CENTURY, 2008.03, pp.386-401 번역 요약

18) Edizioni Gribaudo srl, Industrial Chic-Reconverting Space, 2008, pp.232-239 번역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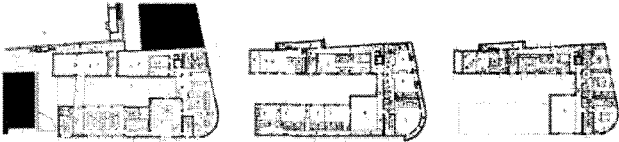
수준 높은 작업에 의한 결과물이다.

5) The Waterhouse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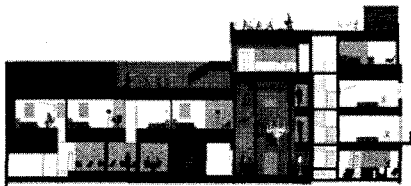


<그림 51> 외관

상해 남쪽 부두 지구에 위치한 워터하우스는 1930년대에 일본군 사령부로 사용되던 3층 건물을 증축하여 19개의 객실을 갖춘 4층 높이의 부티크 호텔로 변형한 프로젝트이다.



<그림 52> 1층(좌), 2층(중간), 3층(우)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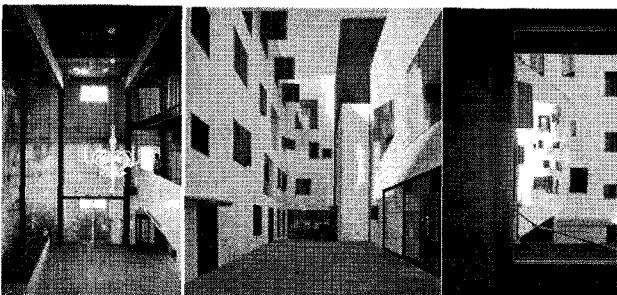


<그림 53> 단면도

기존 건물을 복구하고, 코르텐 스틸을 이용해 증축하여 부지의 산업적 과거를 반영함으로써 신구의 명확한 대비를 이루

었다. 이렇게 새로 계획한 건물은 강을 지나는 선박들을 통해 산업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이곳의 역사 및 문화와도 조화를 이룬다.

디자인은 공공 및 개인 공간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전도시키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로써 공공 공간에서 개인 객실 일부를 엿볼 수도 있고, 반대로 객실에서 리셉션 데스크 위 대형 수직 창문이나 식당이 내려다보이는 복도 창문 등 공공 공간을 볼 수 있다.



<그림 54> 로비

<그림 55> 시각적 연결의 중정 공간

4. 국내·외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의한 디자인 변형

아래의 정리표와 같이 국내와 국외의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보존 및 변형에 대한 방법은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국내의 경우는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있어 대부분 외관 보호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보존이 일어난 사례는 두 가지가 있으나,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의 사례는 동일한 용도로 계속 사용되면서 원형보존이 이루어져 기기 및 시설의 변화만 있을 뿐 공간 안에서 현대와 과거의 건축적 만남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민미술관은 건축물에 과거와 현대의 건축이 모두 섞여 있지만 이 둘이 만나는 부분은 외관상에서의 유리 아트리움뿐이다. 기존의 공간 내에서는 현대적 기능의 공간은 현대적으로 리노베이션 되었고, 전시장에서 일부 기존의 천정과 새로운 벽체의 만남이 있을 뿐이다. 국내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따른 디자인 변형은 과거와 현대의 건축적 만남으로 인한 상상블을 이루는 경향을 찾기가 힘들다.

일본 사례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외부와 공간에 대한 보존과 함께 증축을 통해 현대적 요소의 부분적 첨가로 내부 공간과 외부가 동시에 변화를 이루고 있다. 건축물의 이용 변화에 따라 공간 전체가 변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경우도 기존 공간의 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하여 내부의 요소를 보존하며 리노베이션 하였다. 일본의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따른 디자인 변형은 전체적으로 요소의 보존 보다는 공간 자체의 보존을 통한 특정 건축적 요소의 현대화가 이루어져 기존의 건축물의 재료와 색 등과 조화를 이루고 현대적 재료를 통한 비물질화 등을 통해 신·구가 이질적이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사례의 경우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순서인데 흥미로운 점은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의 경향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기에 개·보수가 된 Sassoon House의 경우 원형보존을 통해 내·외부 전체가 보존되었고, 중반에 리노베이션 된 Bund 9와 Bund18의 경우는 복원에 의한 보존이었지만, 단지 “오래된 것의 복원 그 자체”는 아니었다. 내부공간에 대하여 보존과 개조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조작으로 복원되어 신·구 공간 사이에 공간의 정신적 연결이 존재하여 신·구문화의 모순을 없애고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것으로 디자인 변형을 이루었다. 하지만 과거와 현대의 직접적인 건축적 만남을 통한 새로운 상상블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Suzhou Creek Warehouse와 The Water House와 같이 내·외부의 기존 건축물의 공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며 과거와 현대의 건축적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공간 안에서 각각 이 경우에 따라 조화와 대비를 통해 근대건축물이 이전의 모습을 간직한 채 새로운 디자인 변형을 이루고 있다.

19) SPACE, 2010.09, pp.44-47 요약

<표 8> 국내·외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디자인 변형

구분	보존 방법					보존 내용					내부 공간의 세부 보존 내용							내부 공간의 세부 변형 내용																				
	원형		중축	외관		실내		외관		실내		전	공	내	계	바	천	구	장	개	전	공	내	계	바	천	구	장	개									
	현상	부	병	영	정	전	부	전	부	전	부	체	간	벽	단	다	정	조	식	구	부	체	간	벽	단	다	정	조	식	구	부							
서울시립미술관			●			●				●										●																		
명동예술극장				●		●		●		●				●					●	●	●																	
신세계백화점			●		●		●	●		●						●				●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								●		●					●										●												
일민미술관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제어린이 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신종관				●	●				●						●		●	●	●	●	●	●										●						
메이지 안전생명빌딩	●			●	●		●		●		●						●		●					●		●												
동경대학 공학부 1호관				●	●			●	●					●	●		●	●	●	●	●	●		●	●	●	●	●			●	●			●			
요코하마 아카렐가 창고					●			●	●												●				●	●	●	●	●	●	●	●	●	●	●	●		
Sassoon House	●				●		●		●		●				●																					●		
Bund 9					●			●	●					●	●	●	●	●	●	●	●	●		●	●	●	●	●			●	●			●			
Bund 18					●			●	●					●	●	●	●	●	●	●	●	●		●	●	●	●	●			●	●			●			
Suzhou Creek Warehouse					●		●		●		●															●	●	●			●	●			●			●
The Water House				●	●			●	●												●	●																

(● : 보존과 변형이 동시에 이루어 짐)

5. 결론

본 연구는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의한 디자인 변형에 대하여 국·내외의 각각 5개씩 15개의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사례를 분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의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따른 디자인 변형은 외부의 파사드에 대한 보존이 중심을 이루고 공간 보존이 미미하고, 공간의 요소에 대한 보존이 있어도 주로 신축적 성향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내에서 과거와 현대의 건축적 만남으로 인한 신·구가 양상 불을 이루는 경향을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국외의 사례에서는 외관만 남길 경우도 파사드가 아닌 외관 전체에 대한 보존이거나 대부분 내·외부에 대한 공존적 보존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중 일본의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따른 디자인 변형은 크게 요소의 보존 보다는 공간 보존을 통한 특정 건축적 요소의 현대화가 이루어져 신·구가 이질적이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오래된 것의 복원 그 자체”가 아닌 신·구의 연결을 중요시 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건축물의 공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며 과거와 현대의 건축적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공간 내에서 조화와 대비를 통해 근대건축물이 이전의 모습을 간직한 채 새로운 디

자인 변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역사성의 보존이라는 리노베이션 발생 원인에 근거하여 특유의 그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신·구의 만남이라는 디자인적 방향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그것을 단지 외관에 치중된 디자인적 결과물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디자인적 방법의 정답은 없고, 연구에서의 사례도 협소함도 있다. 이는 단지 디자인의 우열이 아닌 방법의 협소함을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 고찰에서 보았듯이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이 얽혀서 나타나 다양한 모습의 도시가 형성 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내의 디자인적 경향이 외부의 보존에 치중되어 계속하여 이런 방법에 집중된다면 우리는 다양한 도시문화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다양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외부뿐만이 아닌 공간 내에서 현대와 과거의 건축적 접목을 통하여 독특한 도시 문화를 형성해 확고한 도시 이미지를 갖을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대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근대 실내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근대 실내건축공간의 근원적인 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근대건축물의 공간의 디자인 변형에 대하여 외관과 공간에 대한 분화를 통해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재만, 근대건축물 보존개념을 바탕으로 한 리모델링 설계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07
2.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2006
3. 서성호,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재활용을 위한 리노베이션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02
4. 염용래·김기수,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생활용의 디자인수법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n.2007 v.01(2007-12)
5. 오동훈·권구황, 도시재생전략으로서의 도시문화마케팅 해외사례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제5호, 2007.10
6. 윤성훈, 해외 근대건축물의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10
7. 이대규, 국가기무사령부 건물을 활용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계획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02
8. 이완건, 근대건축 보존 그리고 역사도시 서울, 2009.12
9. 이현경, 1960년대 서울 도심건축물의 가치와 보존요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02
10. 정태용, 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4.07
11. 조신혜, 근대건축물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12
12. 주범, 독일 도시복구의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권 1호(통권183호), 2004
13. SPACE, 2010.09
14. Edizioni Gribaudo srl, Industrial Chic-Reconverting Space, 2008
15. Wang Xuyuan, SHANGHAI CHINA THE BUND & ARCHITECTURE OF ONE CENTURY, 2008.03
16. 두산대백과사전
17. 도모코코 코리아 홈페이지:<http://www.docomomo-korea.org/>
18. 목원대학교 근대사연구실 홈페이지:<http://myhome.mokwon.ac.kr/cdkim/>

[논문접수 : 2010. 12. 31]

[1차 심사 : 2011. 01. 17]

[게재 확정 : 2011. 02. 09]